

“5·18 정신, 미래세대가 자발적으로 배우게 해야죠”

5·18 정신 미래세대 전파 힘쓰는 윤재현 해남두문중 교장

절친 ‘고3 시위대’ 차종성씨 떠나 보내며 교육 의지 다져 전교생 등과 5·18 묘지 방문 “교육자로서 역할 다할 것”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당사자로서, 교육자로서 땅끝 해남에서 ‘5·18 정신’을 미래 세대에겐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이가 있다.

해남 두문중학교 전교생 31명과 교원 7명 등 총 38명이 지난달 27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사진> 학생들은 이튿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일일 기자 체험을 하면서 5·18 관련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윤재현(61) 해남 두문중학교 교장이 주도했다. 윤 교장은 1980년 당시 금호고 3학년생으로서 5·18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시위에 직접 참여했으며, 이 때 몸에 익힌 ‘민주와 정의’ 가치관을 미래 세대에 전파하고자 교사의 길을 걸어 온 이다.

그는 또한 5·18 희생자인 ‘고3 시위대’ 고(故) 차종성씨의 동급생이다. 차씨는 1980년 5월 19일 무등경기장에서 시민을 구타하는 계엄군을 보고 항의

했다가 무자비한 구타를 당했고, 45일간 교도소에 수감돼 모진 고문을 받다 석방된 뒤 1983년 3월 고문·구타 후유증으로 숨졌다.

윤 교장은 “(차)종성이와는 함께 5·18 시위에도 참가하고, 재수생활도 같이 한 뒤 전남대에도 함께 진학하는 등 막역한 사이였다”며 “교도소까지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종성이가 끝내 숨졌을 때 어찌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돌아봤다. 또 “43년이 지났어도 의지가 꺾이거나 심적으로 지칠 때면 종성이를 떠올리며 ‘올곧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장은 5·18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고등학생까지만 해도 법대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민주화 현장을 겪으며 교사로 진로를 바꿨기 때문이다.

“민주항쟁 현장을 누비면서 민주주의와 연대, 정



윤재현 교장



의에 대한 가치관이 몸에 자연스레 배어있습니다. 국가 폭력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 세대에겐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야 할 사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윤 교장은 차씨를 포함해 금호고 친목 모임 ‘머저리링’을 창설하기도 했다. 5·18 현장의 기억과 그 의미를 절대 잊지 말자는 뜻에서 역사적인 표현으로 모임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윤 교장은 단순히 5·18정신을 미래 세대에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교직원·학부모 모두가 교육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5·18정신을 배우고 익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금은 학생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깨우치는 활동을 이끌고 있어요. 최근 4·16 세월호 참사나, 4·19 혁명 등 추모 행사를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해남 지역 5·18 유적지와 5·18기념행사를 찾아가보는 등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활동도 계속하고 있죠.”

윤 교장은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연대와 대동정신의 의미가 떨어져 가는 게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전 세대가 몸소 겪은 5·18정신이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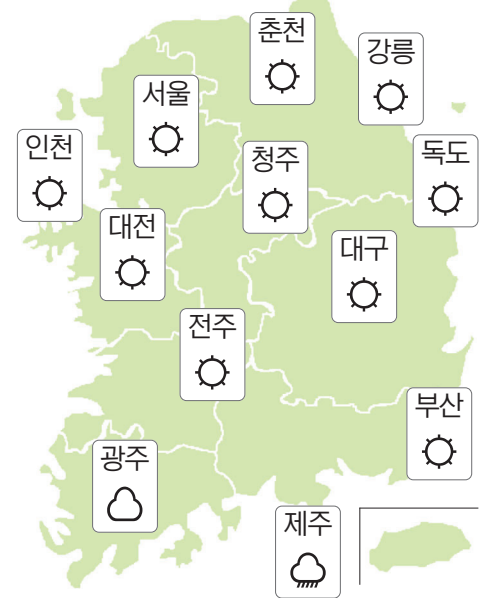
해돋이	05:40	달뜨기	16:52
해질	19:19	달짐	04:18

따뜻한 봄

남서풍이 불면서 전날과 비슷하겠다.

광주	흐림	13/23	보성	흐림	10/19
목포	흐림	14/21	순천	흐림	11/21
여수	흐림	14/19	영광	흐림	12/24
나주	흐림	11/23	진도	흐림	13/21
완도	흐림	13/20	전주	맑음	12/25
구례	흐림	8/22	군산	맑음	11/26
강진	흐림	12/21	남원	구름많음	9/23
해남	흐림	12/22	흑산도	흐림	12/18
장성	흐림	10/23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0	0.5~1.5	0.5~1.5	1.5~3.0
	면바다(북)	0.5~1.5	1.5~3.0	1.0~2.0	1.5~3.0
	면바다(남)	0.5~1.0	0.5~1.5	1.0~2.0	1.0~2.5
남해서부	앞바다	0.5~1.0	0.5~1.5	0.5~1.5	1.0~2.5
	면바다(서)	0.5~1.5	1.0~2.0	0.5~1.5	1.0~2.0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5:58	00:31
여수	18:14	12:44	01:33
	13:44	20:09	07:42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위험	낮음	보통

◇ 주간 날씨

4(목)	5(금)	6(토)
16/21	18/21	16/22
7(일)	8(월)	9(화)
14/21	12/23	12/24

광주여성 “땡큐! 선배님”

금융권 공기업·대기업 등 취업 선배 70여명 초청 특강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김전수)는 지난 1일 2023년 선배 초청 특강 ‘땡큐! 선배님!’ 행사를 운영했다. <사진> 2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매년 5월1일 광주여성만의 특별한 행사로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왔다. 졸업 후 취업한 학교 선배들이 멘토가 돼 재학생 후배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조언이나 직장인의 생생한 경험담 등을 들려주는 자리이다.

이날 행사는 취업한 선배 7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선배들은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금융권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한국철도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공

기업, 삼성전자·KT 등 대기업 등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멘토링은 재학생들의 관심 직종별 반 편성을 통해 각 교실에서 진행됐다. 1·2·3학년 재학생 후배들은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선배로부터 취업준비 과정, 직장생활, 전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취업목표를 정했다.

졸업생들은 정규 시간 이후에도 이어지는 재학생들의 질문으로 쉬는 시간까지 할애하며 답변해줬다. 선배들은 후배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학창시절의 모습이 떠오르며 연락처까지 남기는 등 정성을 다해 조언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양재린(3년)양은 “취업을 준비하며 막막했는데



선배들에게 전해 받은 꿀팁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한 명 한 명에게 성심껏 조언해 준 선배와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선배님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김창숙 부띠끄, 다문화여성 위한 의류 기부

1억1000만원 상당 물품 광주사랑의 열매에 전달

여성 의류 브랜드 ‘김창숙 부띠끄’ (회장 하봉화)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족 여성을 위해 써달라며 1억1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광주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 2일 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최성열 이사, 노효경 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박애리 사무국장, 김진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성열 김창숙 부띠끄 이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타국에 와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족여성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창숙 부띠끄는 지난해 11월 광주 사랑의 열매에 9100만원 상당 의류를 기부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사랑의 열매에 약 6억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해경, 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 기부

여수해경은 헌혈증 200매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전남광주지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헌혈증 기부는 해양경찰 창설 70주년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투병 중인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여수해경 직원들을 주축으로 일반 시민, 포스코A&C 등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헌혈증 70매를 기부한 김영호 경감은 “투병 중인 아이들과 바다가족을 위한 헌혈증 기부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20년간 모은 헌혈증을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혈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재수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헌혈증 기부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헌혈증 기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해양경



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양경찰서는 헌혈증을 추가 기부할 계획으로 투병 등으로 헌혈증이 필요한 어린 등 해양종사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를 통해 헌혈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화상담,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연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

- 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활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터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 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 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향당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레이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차매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